

여성 노동자 임금 245만원...남성의 6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근로자 10명중 4명 이상 비정규직 광주·전남 여성 가구주 19년새 91%↑...그중 17.3%가 미혼

지난해 여성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5만원으로 남성의 69%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4만9000원으로 전년(229만8000원)보다 15만1000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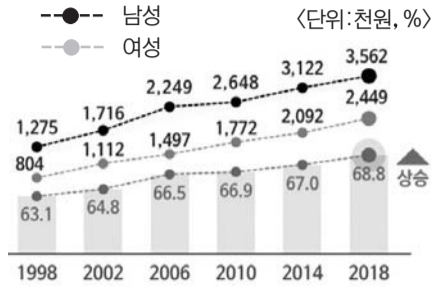
이는 남성 평균 임금(356만2000원)의 68.8% 수준이다.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2015년 65.9%에서 ▲2016년 67.0% ▲2017년 67.2%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70%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887만 4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41.5%인 3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여성이 남성(26.3%)보다 15.2%포인트나 높았다.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임신·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 영향으로 전 연령대 중 30대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M자형 추이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2016년)→51.6%(2017년)→52.8%(2018년)로 조금씩 늘었고 전남지역 비율은 같은 기간 55.3%→55.3%→55.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여성 고용률은 광주 48.0%→50.3%→51.0%로 소폭 늘었지만 전남지역은 2017년 54.2%에서 53.6%→53.8%로 오히려 줄었다.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은 줄고 있는 추세다. 경력단절 여성은 지난해 10만9000명(광주 5만5000명·전남 5만4000명)으로 2016년 11만5000명에 비해 6000명(5.2%) 줄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광주·전남 여성은 ▲2016년 33만4000명 ▲2017년 32만3000명 ▲2018년 32만2000명으로 매년 1000명씩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 여성 가구주는 45만1652명(총

132만9159명)으로 2000년 23만7542명보다 91%(21만명) 증가했다. 이들 중 미혼 여성 가구주는 전체 여성 가구주 10명 중 1명 꼴(17.3%·7만8193명)로 2000년(3만3795명)보다 131.3% 급증했다. 지역 미혼 여성 가구주는 2025년에 9만5000여 명, 2045년에는 14만101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00년부터 집계된 광주·전남지역 미혼 여성 가구주는 이혼 남성 가구주 수보다 많았다. 이혼 여성 가구주는 1만4891명(2000년)에서 6만8389명(2019년)으로 늘고 앞으로 8만1738명(2025년)→9만3131명(2045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2017년 기준으로 광주 84.7세·전남 85.5세(남성 광주 79.3세·전남 78.3세)였지만 30년 뒤인 2047년에는 각각 88.8세·89.8세로 4.1~4.3세 늘어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29.74 (-0.88)
- ↑ 금리(국고채 3년) 1.48 (+0.01)
- ↑ 코스닥 696.00 (+5.47)
- ↑ 환율(USD) 1158.80 (+4.10)

광주은행 '여행스케치 아시아나클럽카드' 출시



1000원당 1마일리지 적립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사진)은 여행과 힐링의 트렌드에 맞춰 20~30대 Youth고객 및 항공 마일리지 적립 선호 고객을 위한 '여행스케치 아시아나클럽카드' 신용(플래티늄)·체크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여행스케치 아시아나클럽 플래티늄카드'는 전월실적 상관없이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를 기본 적립하고 ▲교통, 편의점, 커피, 간편결제,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넷플릭스 등 2030 업종에서는 이용금액 1000원당 2마일리지 ▲해외 온·오프라인 이용금액 1000원당 3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이외에도 ▲국내 특급호텔과 인천·김포공항 통합 월 3회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인천·김포·김해공항 라운지 통합 연 2회 무료입장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행스케치 아시아나클럽 체크카드'는 전월실적 상관없이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5000원당 1마일리지 ▲플래티늄카드와 동일한 2030업종 이용금액

3000원당 1마일리지 ▲해외 온·오프라인 이용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특히 광주은행에서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체크카드를 최초로 선보이면서 고객의 카드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환전(USE·JPY·EUR) 시 환율 50% 우대 ▲해외 ATM기 인출 시 건당 최대 3달러의 해외 현금인출수수료 무제한으로 면제 ▲8월31일까지 체크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업종(여행사·항공사·면세점) 및 해외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이용 시 각 3000원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여행스케치 아시아나클럽카드' 출시를 기념해 1호 가입자로 나서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님의 선호 업종과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서 기존 광주카드의 아시아나항공 제휴 마일리지 적립보다 2~3배 더 적립해드릴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더 풍성해진 광주카드 혜택에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창립 20돌 대유위니아 "2025년까지 국내 50대 그룹 진입"

"신뢰·장조·도전의 핵심가치를 통해 2025년까지 국내 50대 그룹에 진입하겠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1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구그룹에서 대유위니아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놀라운 도전으로 창조하는 미래'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이날 주요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광주에 있는 대유에이텍 복지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룹 전신인 대유에이텍의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대유인상을 수상한 대유에이텍 권의경 대표를 포함해 9명의 임직원들이 각각 공로상·대유미래상·감사패를 받았다.

박영우 회장은 "오늘부터 새롭게 탄생하는 대유위니아그룹은 자동차 제조 부문과 가전 부문이 양 날개가 돼 고객을 향한 힘찬 비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유위니아를 세계인이 사랑과 존경하는 글로벌그룹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다시 힘차게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대유위니아그룹이 1일 광주 대유에이텍 복지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2025년까지 국내 50대 그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선포했다. <대유위니아그룹 제공>

효성 생산기술센터 출범...“세계 1위 기술융합 실현 목표”

효성은 1일 그룹 통합 생산기술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생산기술센터는 섬유·첨단소재·화학 부문의 핵심 공정과 설비 기술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다. 효성기술원과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소속 핵심

기술인력 4개 팀 26명으로 구성됐다. 이 곳에서는 주요 공정과 효성기술원의 핵심 인력들이 협업을 통해 신규 공정을 자체 설계하는 동시에 기존 생산공정을 개선, 기술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 공정 및 주요 설비에 대한 기본

설계 전문 인력을 확보·육성하면서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의 섬유 관련 특허 548건, 첨단소재 관련 특허 708건, 화학 관련 특허 103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 간 시너지를 도모할 방침이다.

조현준 회장은 "세계 1등 제품이 곧 세계 1등 기술이라고 안주해선 안 된다"면서 "기술에 기술을 더해 '기술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효성은 9개의 세계 일류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타이 어코드, 안전벨트 원사 등은 글로벌 점유율 1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작년 대부업 대출액 4년만에 첫 감소

이용자도 3년째 내림세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부(貸付) 이용자 수가 3년째 줄었다.

1일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부 이용자 수는 22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대부 이용자는 2015년 267만 9000→2016년 250만→2017년 247만 3000명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금전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7조3487억원이었다. 같은 해 6월 말(17조4470억원)보다 983억원(0.6%) 준 것이다. 이로써 대출 잔액은 2014년 말(11조 2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출 잔액보다는 이용자 수 감소 폭이 더 커 이용자 1명당 대출 잔액은 737만원에서 784만원으로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5층 (동곡동 518-9)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5층 서울사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